

2003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축하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나라의 운명이 문화적 역량과 창의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문화산업이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에 큰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동심과 추억을 가져다 주는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최근 들어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핵심 분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는 '시카프(SICAF)'는 국내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가 만화 애니메이션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